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91억 예산 확보 25년 완공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계획

남원시가 최근 변화하는 시민 건강 증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 고층동 부지에 연면적 1,900㎡, 지상 3층 규모로 시설을 건립된다. 이 사업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1억원(국도비 7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지난해

설계 공사를 거쳐 기본디자인을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규모는 산모실 13개와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마사지실, 맘카페, 산관가든,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어 산모의 치유를 돕는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남원시를 포함한 동부권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

어 대도시 지역까지 가야 했던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보건기관(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기관으로 총사업비 53억원(국도비 14억원 확보)을 투입해 동중동 지역에 연면적 825㎡ 규모로 설계 중이며 2025년 5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체력단련실, 통합관리실, 어린이체험관 등을 운영해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주민참여공간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보건기관이 없던 동남권 지역(죽향동, 동중동, 향교동, 도동동)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일상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38억원(국도비 13억원 확보)을 투입해 전문 환경개선(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1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실, 물리치료실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확장 배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최근 변화하는 시민 건강증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사진은 산후조리원 조감도. (사진=남원시청 제공)

# 임실군,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선정

### 전북도 주관, 사업비 1700만원 확보

임실군이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 군은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사업비 1,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말까지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 징수율, 징수 신장율,

세수 신장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달성도 등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 기간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으며, 읍·면별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해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체납자 재산 350건 압류 및 체납 차량 영치 15대, 체납자 재산 공

매처분 등을 통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8,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심 민 군수는 "재원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체납 지방세 적극 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시청 1층 로비서 '공감마켓' 진행

남원시 일자리경제과는 25일, 시청 1층 로비에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사회적경제 명절 선물세트 홍보를 위한 현장 행사 '공감마켓'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떡, 한과, 기름, 전통주 등을 생

산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12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상생의 따뜻한 가치를 담은 남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설 명절 선물세트 40여종이 홍보되었다.

남원 대표 특산물인 김부각과 추어탕을 비롯하여 국내산참도토리묵과

기름류, 유기농 누룽지, 강정과 수제 베이커리, 떡국떡과 치즈떡볶이 세트, 수제맥주와 전통주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마을기업 웅치마을 영농회에서 새로 출시한 '지켜줄께 에너지비'는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잡곡 튀밥과 깨, 조정을 버무린 영양만점 간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4 순창 헬린저(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치러진다.

# 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

### 순창군, 내달 1일까지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서

'스포츠산업의 메카' 순창군이 겨울 한파를 뚫고 2024 순창 헬린저(U-12) 주니어 테니스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 라귀현)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치러진다.

참가 자격은 12세 이하의 선수이며, 경기는 새싹부·10세부·12세부로 나누어 남녀 단식, 남녀 복식경기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혹한기에 열리는 만큼, 사계절 전천후로 이용 가능한 실내 테니스장을 최대한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경기장 곳곳에 온열기를 배치하는 등 혹한기 대비 방한대책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어린 선수들이 추위를 이

겨낼 수 있도록 어묵탕과 핫팩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다른 대회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창을 찾는 선수들이 순창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대회 진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스포츠대회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스포츠대회 유치는 오랫동안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대회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참가자들이 순창군에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 한해 순창군은 학부모들의 참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26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기 테니스대회 등 5개의 초등선수 대상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폐렴구균 무료 접종

남원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률도 증가하기에 사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보건소(지소·진료소) 및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자는 65세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을 한번도 맞지 않은 어르신으로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방문하면 무료(1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설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품 전달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관내 349개소 경로당에 위문품(백미, 임실사랑상품권)을 전달한다.

위문품은 읍·면장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명절 인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과 안부 확인뿐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시설 개·보수와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준비한 위문품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한 설 명절과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적이 많은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